

## U대회선수촌 사용료 '467억 對 36억'

〈조합측 요구액〉

〈광주시 제시액〉

입주까지나·대회기간이나  
사용 기간 소송...1심 진행 중  
대법까지 장기화 전망  
재정난 광주시 최대현안 될수도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이뤄질 경우 선수촌 사용료 해결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U대회 선수촌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 소지도 우려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와 광주U대회조직위원회,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467억5000만원 상당의 U대회 선수촌 임대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4차 심리공판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조합 측은 광주시 등과 대회 기간 동안의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진행해온 협상이 무산된 데 따라 조합원 2461명 등 275세대가 참여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회 기간 선수촌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사용료로 467억원을 달라는 게 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정점은 사용 기간에 대한 입장 차이다.

조합 측은 아파트 임시 사용이 가능한 지난 5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주민들이 입주하는 내년 3월까지 최소 11개월치 사용료 등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2015 광주세계U대회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U대회) 기간 중 선수촌으로 사용됐던 아파트 사용료를 놓고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측과 광주시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선수촌 건립' 협약을 근거로 36억을 제시했다.

시는 임시사용 승인이 이뤄지는 4월부터 대회 폐막 뒤 선수촌을 남기는 9월까지 126일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또 인천 아시아게임 선수촌 사용료로 35억원이 지급된 점도 조합측에 제시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는 U대회 선수촌 사용 기간의 판단 여부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시와 조합 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는 올해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이 항소 등을 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U대회 선수촌 사

용료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시가 패소할 경우 467억원의 예산 마련은 가뜰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로서는 버거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결과는 내년도 광주시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신세계 특급호텔 건립 사업 적극 추진서 신중 검토 선회 '논란'

광주시가 (주)신세계와 체결한 '특급호텔 등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개발 투자협약(MOU)'과 관련, 지역내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해 '적극 추진'에서 '신중한 검토'로 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신세계와 '지역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이 협약에 따라 광주 서구 화정동 이마트 부지 등 2만6634㎡ 면적에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중국인 관광객 유입 등 급변하는 관광·쇼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급호텔 건립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는 일부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인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MOU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자 난감한 상태였다. 따라서 시가 특급호텔 건립과 관련, 최근 '적극 추진'에서 '신중 검토'로 입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신세계 측과 만나 판매시설 면적과 중소상인과의 상생 방안, 교통영향 개선 대책 등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MOU를 원점 재검토한다. 백지화 검토 등의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최근 신세계 측을 만난 것은 특급호텔 건립 진행과정에서 교통영

향 개선 대책, 판매시설 면적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시의 이같은 입장 전환에 대해 특급호텔 건립 반대 여론 등을 감안, 판매시설 면적 조정 요구 등을 통한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 관계자는 "판매시설 면적이나 상권·교통문제 등에 대한 시의 대책 요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고, 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2019년 7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이전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계에서는 "시장이 대규모 투자 유치사업을 뒤늦게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향후 어떤 기업들이 광주시를 믿고 광주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광주시의 입장 변화에 대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 가을... 두 바퀴의 사랑

'2015 Green 자전거 축제' 10월 25일 영산강 일원

영산강변의 정겨움을 느끼고, 가을에 나누며 남도의 가을을 체험하는 '2015 Green 자전거 축제'가 10월 25일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와 승촌보, 영산대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자전거축제는 크게 ▲자전거대행진 사랑코스(45km) ▲백일장 대회(초등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전부 참가비 무료)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시작해 서창교~승

촌보~나주대교~영산대교~승촌보~서창대교~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 구간에서 열립니다. 백일장 행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만산홍엽의 계절에 영산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5년 10월 25일(일) 오전 9시
- 장 소 :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
- 종 목 : 자전거대행진, 백일장대회
- 참가비 : 전 종목 무료
- 주 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 주 관 : 자전거사랑전국연합광주본부, 광주광역시사이클연맹,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
- 후 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문 의 : 자전거대행진 / 062-376-3112(자전거사랑전국연합광주본부) 백일장대회 / 062-220-0541(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光州日報社

## 여야,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합의

선거구획정위 오늘 전체회의

여야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데 5일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막을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기로 했다.

원우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수석부대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등 5개 조항에 합의했다.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내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확정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려면 현재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수 문제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의 지역구 숫자와 권역별 배분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예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10월호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가을엔, 축제  
10·11월 남도는 '축제' 절정  
성공한 축제엔 이유가 있다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을 가다

가을 숲, 생명하기 짊어가네  
사색과 지혜를 채워주는 '우주의 숨결'  
다른 풍경으로 부르는 전남의 숲들

동화의 나라 덴마크에서 마주한 유년시절의 기억

가을 속 아시아(1)  
가난 속에서도 미소 잃지 않는 '바마'에서 만난 사람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공연장 '전장자리' 문연 수안스님  
첫 개인전 주목받은 목수화가 박정근

스타데이트  
"주인 집착 없이 레나 정애란 '백점조'"  
"여왕의 꽃"에서 일어난 김성령

예향 초대석  
**한예종의 미래 설계하는 건축학자 김봉렬**  
"교육도 건축도 일맥이어서 사람이죠"

남도의 정인들  
소망 가득한 손끝에서 살아나는 전통 떡살 문양  
목조각장 김규석

사람이 브랜딩다  
살개한 건축물에 살아있는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가장  
건축가 김중업 & 안양

도시재생, 문화에 몰입해-국회의 현장을 가다  
"크리에이티브 요코하마"의 상징  
뱅크아트 1929

베국년의 대중문화 X파일(1)  
드라마, 영화 생애 좌우하는 캐스팅에 얽힌 이야기  
'십들이'와 '십순이'를 아시나요?

친목업 교수의 남도의 밥 이야기(1)  
성인의 불성에 나를 되바추는  
개달음의 상징, 불탑

한글날 기획  
한글의 향기 그윽한 그곳  
개관 1주년 맞은 국립한글박물관

문화 화제  
"개인작가 부스로 성과 높인  
국제 미술 장터 '아트광주 15'"

주요리 디자이너 겸연경씨와 함께  
나만의 주요리 만들기

추천  
자연으로 빚어내는 생태수도  
순천의 감성 무신기행

가을엔, 축제  
10·11월 남도는 '축제' 절정  
성공한 축제엔 이유가 있다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을 가다

가을 숲, 생명하기 짊어가네  
사색과 지혜를 채워주는 '우주의 숨결'  
다른 풍경으로 부르는 전남의 숲들

동화의 나라 덴마크에서 마주한 유년시절의 기억

가을 속 아시아(1)  
가난 속에서도 미소 잃지 않는 '바마'에서 만난 사람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공연장 '전장자리' 문연 수안스님  
첫 개인전 주목받은 목수화가 박정근

스타데이트  
"주인 집착 없이 레나 정애란 '백점조'"  
"여왕의 꽃"에서 일어난 김성령